
2020년 제12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3. 13. ~ 3. 1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13.	시청률	0.046

【총 평】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의 코로나19 차단 노력 및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은 사전 차단에 국가 존망이 걸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출신 한의사를 초대하여 북한의 의료체계와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남북 보건협력에 대한 해법 등을 들어보았다. 특히, 한의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피부에 와닿았고, 국경봉쇄 등 강력한 차단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할수록 북한이 마냥 먼 남의 나라, 그리고 늘 우리와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 민족이고 같은 민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북한의 방역체계와 의료 수준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은 시의적으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북한의 전염병 대응 체계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현실을 살펴보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과 예방법 일체를 소개했다. 또, 북한의 천연물 시장을 돌면서 북한의 건강식품과 주민들의 건강관리법, 방역체계, 예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북한은 한국과 의료체계가 전혀 다른데 고려의학이라는 의미는 서양의학과의 한의학을 통합한 것으로 보면 된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호담당, 양한방협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예방의학이 힘들다. 또, 기본적으로는 의료 서비스는 무상이지만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병원 내 시설, 장비, 약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돈이 오갈 수밖에 없다. 북한 공식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인데, 진단키트,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확진 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진단시약, 치료시설이 부족하므로 사전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약 북한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초비상 사태일 수 있다. 현재는 격리 형태로 처리하지만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목적 격리를 넘어선 수용, 감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남북 관계는 보건의료 협력 추진으로 남북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이고 한국의 선진 보건의료체계가 북한에 이식되었으면 한다. 남북 간 이질적인 의료법이 통합된다면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건강한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사항】

04:23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공존”이라는 자막에서 ‘국가 체제’는 ‘국가체제’의 오타기였다.

프로그램	법보다 법		
방송일자	2020. 3. 14.	시청률	0.087

【총 평】

코로나19로 빚어지는 무급휴가, 공연과 여행 위약금 문제, 마스크 사재기 등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국민들의 불만, 불안, 우려점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돋보이는 기획이었다. 갑자기 닥친 감염병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법률 문제를 사례별로 살펴보는 기획은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법적 분쟁과 생활법률 정보를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시의성 있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생활법률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도 자막을 활용해 가독성 있게 제시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무급휴가 통보 상황을 재현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쟁 사례들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경우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개인의 선택권, 사회적 공중보건 위생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 깊이감 있게 조명해 공감도를 높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회사직원이 아직 감염병으로 확진자로서 판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시 모를 만일에 대비하기 위한 휴가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사업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사유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근로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업자도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자가 다녀간 동선을 밝히는 것은 법적 의무이고 이로 인해 실명이 거론된 호텔 및 빵집 등은 고의나 과실로 실명이 거론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 유증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새롭게 제정된 코로나 3법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고시하는 일부 품목에 한 해 매점매석 시 처벌 할 수 있고, 사업자뿐 만 아니라 개인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해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일반인이 중고매장에 비싸게 내놓아 파는 것도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또, 마스크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며 면마스크 착용의 효율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짚어줬는데 바이러스 차단효과는 떨어지지만 비말 감염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해 매우 유용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3. 14.	시청률	0.083

【총 평】

봄을 맞이하는 통영의 풍경과 소리를 담았다. 동백꽃이 절정을 이루는 초봄, 통영에서 가장 빠른 아침을 맞이하는 서호시장과 연화도의 봄 도다리와 썩으로 또다른 봄의 소리를 들려 주었다. ‘호젓한 남도의 섬’과 ‘봄기운이 스며드는 곳곳의 풍경’, ‘도다리썩국 등 봄 제철 음식’, ‘바다를 배경으로 먹는 한 끼 식사’ 등이 봄맛이 섬 풍경을 아련하게 담아냈다.

통영의 봄을 소재로 했는데 흔히 생각하는 통영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두루 그려냈다고 보다는 시장 풍경과 도다리 낚시, 썩 캐기 등의 특정한 장소를 담아낸 느낌이 강했다.

【구성 및 내용】

동백꽃은 겨울에도 피긴 하지만 2월 말, 초봄이 동백꽃의 절정기로 동백꽃이 가득한 통영의 봄의 소리를 따라가 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통영의 봄’을 통해 소소한 일상의 모습이 친근하고 정겨웠고, ‘엄마의 품 같은 섬’ 연화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 서호시장

서호시장 상인들의 새벽 풍경을 그려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추운 새벽에 나와서 뜨거운 물에 손을 녹이면서 일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다소 힘겹게 비춰지기도 했지만 표정이 워낙 밝아서 오히려 활력을 더했다.

시장 바리스타 아주머니도 등장을 해서 20년째 시장에서 일하면서 아들, 딸 공부 다 시킨 엄마로서의 모습을 강조해서 짙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예전부터 뱃길 마친 어부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많이 찾았다는 서호시장 이곳은 통영에서 가장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곳으로 활기찬 소리가 가득하다. 시장 풍경 이후에는 연화도로 가기 위해 나간 통영 앞바다의 아침 풍경을 아름답게 잡아내어 볼거리를 제공했고 여기에 새소리와 파도소리, 뱃소리가 어우러져 아주 운치 있었다.

■ 연화도

연화도에 들러 진행자가 직접 배를 타고 나가 도다리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고 어부의 일상을 그려냈다. 연화도의 아낙네들이 한데 모여 썩을 캐고 이것으로 썩국을 끓여 서로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장면을 훈훈하게 담아냈다.

통영의 많은 섬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터를 잡고 살았다고 전해지는 연화도는 바람, 파도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가득하고 세월이 빚어낸 비경이 멋진 곳이다. 배를 타고 도다리 낚시를 나가면서 ‘세 한 폰 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바다’라고 표현, 낚시가 끝났을 때는 ‘모자라지 않아서 고마운 하루’라고 표현 등이 운치 있었다.

연화도 아주머니들은 썩을 캐서, 도다리와 썩으로 도다리 썩국을 만들어 먹는다. 봄이 만들어준 맛이다. 썩을 캐는 소리도 잘 잡아내면서 진행자가 ‘겨울의 바삭함과 칼의 생동감이 만나는 느낌’이라고 말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15.	시청률	0.116

【총 평】

도시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나 경남 통영 욕지도로 귀촌한지 5년차 부부의 이야기를 다뤘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를 만큼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섬 사람의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60대 부부가 매 순간 대화하고 웃는 모습속에 ‘귀촌을 하니 시간에 쫓길 일 없어’, ‘문만 나서면 등산’, ‘여행처럼 일상을 살아’, ‘저물어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욕지도에서 맞은 인생의 봄’ 등의 표현이 행복한 귀촌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또한, 부부의 귀촌 꿈, 귀촌 이후 소소하게 가구는 텃밭과 동물 식구들, 귀촌 이후 사라진 마음의 병과 편두통, 섬 생활의 즐거움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오늘 방송 주인공 부부는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삶에 찌들지 않은 모습과 귀촌 생활의 모든 순간을 만족해하고 즐거워했다.

【구성 및 내용】

부부에게 꿈이 있었다. 산속에 들어가서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 살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통영 욕지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부부는 귀촌한지 5년차가 되었다. 귀촌한지 5년, 마늘밭을 일구고 흑마늘로 만들어 먹는다. 양파밭은 물론 블루베리, 단감, 앵두, 사과, 배나무 등 과수나무를 잔뜩 심어서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덧 다양한 농사의 전문가가 되었다. 도시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나보니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것이 몸에도 무리가 오고 편두통도 심했다. 그래서 귀촌을 생각했고 편두통도 사라져 매순간을 여행 온 기분으로 살고 있다.

귀촌한지 5년, 동물식구들이 많이 생겼다. 텃밭에서 키운 배추를 먹고 자라는 염소들이 수십여 마리가 되었고 부쩍 늘어난 닭들은 달걀이라는 선물을 준다. 5년 만에 첫 달걀 주문이 들어와서 수확한 달걀을 가지고 외출하기도 했다. 특별하게 귀촌 생활이 행복하다든지 또 보람이 있다든지 하는 설명이 없어도 부부의 표정에서 그대로 묻어나왔다. 아내가 이야기한 “살아가는 게 운동이라는 말”이 긴 여운을 남겼다.

그 동안 아내가 다리를 다쳐 즐기지 못했던 낚시를 시작했다. 집을 벗어나 조금만 달리면 펼쳐지는 남해바다로 도착하여 촬영 전날 구입한 작은 배를 직접 운항하여 마을 낚시터에 도착하여 낚시를 즐겼다.

오랜만에 부부를 찾아온 아들, 고구마 농사를 돕기 위해 충청도에서 찾아왔다. 부모님이 욕지도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그 때를 아들은 새삼 떠올려보는데, 아들이 보는 욕지도에 사는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미니 굴삭기로 이웃을 도와준다. 한편 이웃은 부부에게 농사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남편은 귀촌 5년차에 최근 마을이장이 된 것처럼 이웃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며 건강하게 지금 이대로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프로그램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방송일자	2020. 3. 15.	시청률	0.030

【총 평】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제3회는 ‘매의 눈으로 지킨다 1부, 휘경동 감시자들’편으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24시를 방송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상을 부각시키는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사회적 범죄를 소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일상이 결코 녹록지 않은 순간들임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실 심장부를 다뤄 흥미진진했고 소재가 참신했다.

특히, 24시간 교대근무로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공무원들의 일상을 밀착 취재, 르포 형식으로 구성해 몰입도를 높였다. 식사시간에도 올려대는 경보음, 퇴근 후에도 긴급상황이 발생해 다시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15시간 집중 근무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일상을 다큐형식으로 밀착 접근한 포맷이 공무원 인지도 향상이라는 제작방향을 부각 시켰다.

【구성 및 내용】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사람들의 이야기, “매의 눈으로 지킨다-휘경동 감시자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편을 방송해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과 수용성을 높였다.

일반 현장다큐에 웹툰 편집을 더하여 보는 재미와 신선한 구성 방식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다변화의 노력이 많이 깃들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실은 성폭행·살인·강도 등 3천여 명이 넘는 대상자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범죄 대상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관제실 직원들의 24시간을 보면서 업무의 피로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리더의 책임감과 고뇌, 공무원의 동료애 등 공직생활의 내면을 읽을 수 있었고 공무원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08년 시작된 성범죄와의 전쟁은 올해로 12년째로 접어든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행 12년이 된 지금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매의 눈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사람들의 베일에 가려진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됐던 전자감독제도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까지 확대됐음을 설명했고,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 365일 감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감시, 비상 상황, 열 명의 직원이 천여 명을 관리하는 속사정, GPS 위성으로 파악하여 출입금지 위반을 감시 감독하는 모습 등 직업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었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0. 3. 16.	시청률	0.055

【총 평】

코로나19의 국내외 현황과 확산 추이를 발 빠르게 전하고 정부의 뛰어난 방역체계와 검역강화 노력을 전달해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시국이 비상사태인 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LIVE’ 중계를 기자 질의까지 편성해 시청자 알권리를 충족시켰고, 다른 채널에서 중계하지 않는 기자 질의까지 포함한 차별화된 편성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초래된 다양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 소식도 시의성 있게 보도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유용했다.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만연해가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알뜰신잡>은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치료를 위해 안심하고 찾아야 할 국민 안심병원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구성 및 내용】

■ 문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됨을 자세히 보도해 화제성이 있었다.

■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국가부담 확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원정책임을 설명하고, 이번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 외교부, 日 사전통보 주장 반박...“매우 실망”

일본 정부가 한국인 여행제한 조치를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일본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음을 보도해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는데 유용했다.

■ “내 마음을 담아”...마스크 기부 캠페인 시작

구세군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를 시작했음을 소개하고 모아진 마스크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 가짜뉴스로 증폭되는 불안감...대처 방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가짜 정보들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며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의 사실여부를 짚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 4부		
방송일자	2020. 3. 16.	시청률	0.107

【총 평】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회가 공황에 빠지고 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결속을 다져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특별기획으로 KTV의 공적책무 수행이 돋보였다. 3월16일 특별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 1부에서 4부까지 장장 6시간 30분 동안 코로나 관련 방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KTV는 390분간의 특별생방송을 통해 수도권 감염 확산 등 코로나 현황 진단을 비롯해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특별입국절차 확대, 방역물품 확보 등 대응책 점검,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준금리 전격인하,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관광업계 긴급 지원책 등 솔루션을 꼼꼼히 다뤄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은 물론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고시켰다.

【구성 및 내용】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결속을 다져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특별기획 힘내라! 대한민국은 정책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빛을 발했다. 특별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 4부에서는 개학연기의 찬반 논란, 재난기 본소득 도입 논란 등 핫 이슈를 다뤄 주목도를 높였다.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떠돌고 있는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 전문가의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임을 명쾌하게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폐로 전파된다’, ‘공적마스크 구입시 확인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총선에 활용된다’,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등의 뉴스는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났다. 코로나19의 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만대 교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영국BBC, 프랑스 AFP,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은 한국방역의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고 특히 영국 BBC는 신속한 진단의 요인을 “한국인의 빨리빨리 유전자”로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도쿄올림픽의 개최 전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본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아프리카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의료진의 대책을 촉구한 점은 의미가 컸다. 이밖에 확진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 격리, 군장병들의 사랑의 헌혈운동,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익산시 용안 의용소방대의 ‘식사하셨어요?’ 등 훈훈한 미담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힘내라! 대한민국 4부 최대환 진행자의 논리와 설득력이 뛰어났고 촌철살인의 논평이 효과적으로 전달됐다. “주민센터보다 약국이 더 많다”,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노벨상에 추천하겠다”, “마스크 3일 정도 써도 차단율이 90%가 된다는 실험 결과 보도가 늦어 만시지탄이다”, “지금은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가 아니라 마스크 끈을 더 조여야 할 때다”,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미국 하원의 반응 보도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등 의미있는 어록을 남겼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제2의 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		
방송일자	2020. 3. 18.	시청률	0.053

【총 평】

KTV 특별기획에서는 '제2의 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를 부제로 하여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의 현황과 실제,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두루 다뤘다. 특히, '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지'를 직설적으로 명쾌하게 풀어줘 국민적 오해를 바로잡고 궁금증을 해소시킨 점이 돋보였다. 또한, 가짜 정보의 폐해를 지적한 뒤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응책,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식별방법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점도 유익했다. 이 밖에 허위정보를 조작하는 1인 미디어와 일부 언론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 부분도 공감을 얻었다.

【구성 및 내용】

KTV 특별기획 <제2의 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특히, 사례별로 현장을 탐방하고 관계자와의 사실확인을 통해 가짜정보를 밝혀낸 구성도 몰입도와 흡인력을 높였다. 특히, 지역별 가짜뉴스, 대통령과 의료인 관련 허위조작정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담겼다.

■ 대통령 대상 허위조작정보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대통령이 반대 손을 올리는 조작 사진이 사람들에게 퍼졌다. 물론 반박보도 및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허위조작정보가 사람들 간에 유통되면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 의료인 대상 허위조작정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허위조작정보도 한 단계 진화하였다. 공격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데 특히 현장 의료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 정치 프레임 허위조작정보

정치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일 확률이 높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확산사태는 재난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보도준칙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구별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의 출처 확인,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3가지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시민들도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18.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리포트>는 ‘코로나19 확산 위기’ 관련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관점에서 취재된 내용으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2020년 새로 선정된 KTV 국민기자들이 전한 리포트는 취재 내용이 수준급이었다.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KTV 국민기자들이 펼쳐 낸 다양한 현장 소식과 활약상을 기대된다.

올해 선발된 KTV 국민기자들의 취재력이 한층 나아졌고, 내용면에서나 형식적인면 모두 수준급이었다. 또, 연중기획 ‘국민 영상편지’에서 다룬 “입학이 늦어진 어린 딸에게 응원의 편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간접화법으로 다뤄 인상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 다문화 특구 안산...다 함께 코로나 19 차단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문화 특구 안산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모습을 전했다. 다문화 특구답게 중국 및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인터뷰가 많이 준비되어 코로나 19로 전세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참여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 하늘길 끊기고 입국 제한...베트남 교민·기업인 이중고

베트남 하노이의 한인 거리를 취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민과 기업인이 겪는 이중고를 소개했다.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교민들의 어려움과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이 입국하기 어려운 사정 등 코로나19로 인한 현지의 모습과 피해 소식 등을 전하였다.

특히, 텅 빈 한인거리의 모습을 취재하여 현 사태를 충분히 공감하게 만들었고 유학생들과 인터뷰로 타국에서 겪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한층 더 실감나게 해주었다.

■ 철거 앞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사마을을 소개했다. 5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철거를 앞둔 백사마을의 애환과 역사를 영상에 잘 담아냈고,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까지 취재한 수준 높은 구성이었다.

■ 입학이 늦어진 어린 딸에게 '응원의 편지'

코로나19로 입학이 늦어진 초등학교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를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입학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로 학부모들의 많은 공감을 샀을 것 같다. 첫째를 입학시켜 본 부모들은 다 공감할 설렘과 뭉클한 감동이 잘 전달됐다.

■ '코로나 19' 예방 행동 수칙 알아두세요.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일반국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